

2017년 10월 20일, 남원읍 신례2리 문인진 씨 댁, 진선희 조사.
문인진(여, 1930년생, 남원읍 신례2리)

- 줄거리: 제주와 육지를 오가는 배들이 큰 바다에서 높은 파도로 사고가 나는 일이 많았다. 사람들은 처녀를 바치면 파도가 잠잠해진다고 믿어 큰 바다에 처녀를 바쳤다. 그 처녀는 죽어서 뱀으로 환생해 바닷물이 들고나는 제주 동쪽 굴에 사는 것으로 전해온다.

[제보자] 동쪽에 굴이 있었는데, 그 굴에 가 보면 물이 바닷물이 안트레 들어가고 바끗드레 나오고 허는다. 거기가 옛날에는 물건 실령 뎅기는 큰 배가 잊어낫거든. 그 배가 물건을 허 오면은 육지가서 팔양 오게 되면은 큰 바당을 타고 가낫거든. 비행기도 엊고 허니까.

그렇게 가는데 우리가 듣기에는 가다가 파도가 째면은 큰 바당 탈 때는 가지 못해그네 돌아오는 수도 있고 경 허니까 그 어른들이 어디강 들으니까 여기는 처녀 바쳐야 큰 바당을 통과한다 이런 전설이 나왔어.

경 허니까 이제 처녀를 허나 어떻 헹 구해가지고 담가당 큰 바당에 처녀를 바쳤어. 바치니까 죽어서 미신이 됐가지고 베암으로 환상해서 그 굴 안에서 베암이 살고 나가고, 나가고 들어가고.

근디 이것을 토산땅이라고 헤가지고이 서구포로 이레는 안 허는 분들이 엊어. 토산땅이라고 해서 베암 그걸 모셔서. 모신 데에 그짝드레는 우리는 그게 필요없다 헹 아니 모셔.

- 핵심어: 큰바당(큰바다), 처녀, 굴, 베암(뱀), 서구포(서귀포), 파도, 바닷물, 배